



세 계인의 축제 제23회 2018평창동계올림픽대회가 지난 9일 오후 8시 강원도 평창군 평창올림픽스타디움에서 막이 올랐다.

'하나된 열정' (Passion. Connected)이라는 슬로건 아래 시작되는 평창올림픽은 92개국 2925명의 선수들이 참가했다.

이는 지난 2014소치동계올림픽대회 때보다 4개국 67명의 선수가 늘어나 역대 올림픽 중 가장 많은 참가국과 선수 참가 기록을 세웠다.

선수들은 오는 25일까지 각 종목별 경기에 출전해 자국의 명예와 선수 개인의 꿈을 실현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인다.

평창올림픽 경기 종목은 15개이고 세부종목별로는 102개로 나뉜다. 동계올림픽 사상 처음으로 금메달 수가 100개가 넘는 기록도 세웠다.

이날 개막식에서는 '행동하는 평화'라는 슬로건처럼 전 세계 25억 인구에게 평화를 보여줬고 들려줬다. 개막 공연은 한국의 아름다움을 표현했다.

(사진=뉴스시스 제공)

2018 평창 동계올림픽 개막식이 열린 지난 9일 오후 강원도 평창 올림픽스타디움에 개막선언을 시작으로 불꽃놀이가 진행되고 있다.



하나된 열정... 행동하는 평화... 세계인들에게 선사



태권도 시범단이 식전 공개 행사에서 공연하고 있는 모습.



개막선언을 시작으로 우리나라 올림픽 유망주 선수들이 올림픽기를 들고 입장하고 있는 모습.



가장 한국적인 장단으로 스타트를 끊은 개막식 공연.



가장 화제가 된 공연 중 하나인 '평화의 땅'. 무대에 등장한 '인면조'는 고구려 벽화에서 나온 것으로 천년을 살아 평화로울때 나타난다는 전설적인 존재라고 한다.



개막식 공연 중 하나인 '모두를 위한 미래'. 이 공연에 첨단기술 등이 도입됐다.



마지막 성화봉송 주자로 나선 김연아. 성화봉송 전에 화려한 연기를 펼치고 있다.(왼쪽) 그리고 활활 타오르는 성화.(오른쪽)



남과 북 선수들이 한반도기를 흔들며 공동 입장하고 있는 모습.